

**심수**  
심법을 듣는 사람은 자제를 단정히 해야 한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일심(一心)으로 말의 의미 속에 들어가라. 그런 뒤에 거론 마음으로 법을 듣고 감격해야 한다.  
-지도론(智度論)-

대국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2월 6일 수요일(주간) 제 297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불교를 연구하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 최근 '간화선'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개진되고 있지만,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하지 않고, 논하지 말라"는 한 권의 주장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 적절하게 응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가 불교 학자들이 '간화선이나 선이론 해설 문제를 논하기 전에, 불교학계 내부적으로 연구와 수행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자성의

**학술**

**'불교학 발전' 화두로 연구-수행 관계 정립**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재가 학자들은 연구와 수행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수행에 치우치면 호교론으로 기울기 쉽고, 학문에 치우치면 불교의 본질을 볼 수 없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와 수행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서 재가 학자들이 나누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연구와 수행을 하나로 여기는 견해와, 두 문제를 달리 보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학자는 "선배 학자들은 지금과는 달랐다. 그들에게 불교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의 대상이었다"며 "불교학에 서구적인 연구방법론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연구와 수행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안타깝다는 감정적 차원보다는 불교학의 발전을 저해할 측면이 더 강하다. '간화선'이나 '선이론 해설' 등의 논쟁은 한국 불교 현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데, 논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각 미달'이라는 딱지를 붙이고는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goba000@buddhania.com)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www.yosiamun.com**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 “각 종단 환경부서 설치”

### 13개 단체, 종단·사찰에 '환경훼손 참회' 건의

"사찰의 환경훼손에 대한 참회와 불교의 생명운동 동참을 건의합니다."

무려한 대형불사와 오·폐수 방류, 무분별한 방생 등 사찰의 환경훼손을 다같이 참회하자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또 본·말사주지 연수, 승가교육에 환경교육 실시, 각 종단에 환경전담부서 설치 등 불교계가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정책이 제안됐다.

지리산살리기·달백지화 범 불교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환경교육원 등 13개 교계단체들은 11월 30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리산댐·장경사 송전탑 건설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불교계이지만,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 봐야 한다"며, "사찰에 의한 환경파괴를 다같이 참회하고 불교가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다 하자"고 각 종단과 사찰·교계 단체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무분별한 대형불사와 방생 법회, 오·폐수 방류, 산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사하촌의 위락시설로 인한 하천오염 등 많은 환경훼손이 사찰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교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각 종단에 환경전담부서 설치 △무분별한 불사 방지를 위한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본·말

사주지연수·승가교육에 환경교육 실시 △불교환경단체 지원 등을 각 종단에 건의했다. 또 각 사찰에 △정기 환경조사 및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무분별한 대형불사 중단 △환경 법회 및 교육 등을 요구했다.

교육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불교환경이론 정립으로 환경위기사대의 불교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자들에게도 "환경보전법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생활운동 및 노동공동체 운동 등 환경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경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록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1월 29일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두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월성·대릉원·황룡사·명왕산성 지역이 포함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시대 천년의 문화적 업적과 불교 및 세속 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2000~3000년 전의 장래 및 의식유적으로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발전의 생생히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과 경주시 및 고창, 화순, 강화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록을 기념해 △홍보물 제작, 배포 △축하공연 △경축식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오종욱 기자



### 자비의 뜨개질

한국 한교에 정성과 자비를 담아 만드는 따뜻한 스웨터로 겨울 추위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스웨터를 뜨는 노인선원복지관 수요봉사회 회원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사랑의 스웨터와 장갑, 목도리 등은 12월 중순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3면>

### 종단협-조불련 14일 베이징 회동

통일토론회 등 논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북한 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대표단이 14일 베이징에서 만나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개최,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경양 방문, 북한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조계종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13일)와 평불협(15일) 진각종(16일) 천태종(17일) 불교인권위(17일) 태고종(18일) 대표

단도 13~18일 조불련과 개별 접촉을 갖고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한다.

조불련은 31일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섭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 "심상선 서기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귀국과 외 만남을 12월 14일 베이징에서 가지려 한다"고 알려졌다. 조불련의 이같은 제안은 11월 13일 종단협의회에서 12월중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한 데 대한 답신이다. 조불련은 조계종 등

에도 같은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베이징 회동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위원장 명진스님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다. 종단협의회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의 부장급으로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4일 회동간 간담회를 열어 대화를 논의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일제 인터넷 불교신문  
**Buddhanews.com**

## '94·98년 사태 열빈자 사면' 조계종 종헌개정안 '심의'

조계종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종하)는 11월 28일 총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종무원이 제출한 종헌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종무원은 27일 열빈자의 사면 실시를 위해 종헌 개정안을 총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종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따르면, 99년 제정된 종헌 특위법에 따른 열빈자 사면 대상으로 하며, 사면 이후 15년 동안 종헌특별심의회의 승낙 후 임과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금지한다.

이날 회의에서 종헌특위는 94년 종단사태에 관련돼 열빈자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종헌 개정안의 수정을 종무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무원은 수정 종헌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종무원은 또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할 종헌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 구성과 관련 호법부장 종지스님은 지난 3월 열린 중앙총회에서 종책질의

답변을 통해 "엄정한 사면·복권 심사기준을 정하여 호계위원과 중앙총회의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94년과 98년 종단사태로 열빈자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20명 정도이다.

종무원은 종헌 개정안을 지난 9월 14일 임시총회 인사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징계자들에게 대한 사면·복권 등 구체적인 화합 방향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종대스님 증교인 대표 노벨평화상 축하 출국

조계종 종무원장 정대스님이 강원특별자치도(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단 증교인 대표로 참석한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시청에서 열린다. 정대스님 등은 대통령 전용기편을 이용해 8일 출국, 13일 돌아올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관절염 앓는 노스님이나 불우신도를 주위에서 추천해 주세요"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이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우천 원장과 담담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 6~8명 정도  
◆지원 대상: 노스님,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불자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찰, 외전상 삼하게 잘뛰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단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안락) 및 무릎 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현대불교신문사·동인천 길병원  
후원: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내)

경계번영 평화통일 불국토성취기원

# 석지형 스님 묘법연화경 대강좌

## 강론

불교교양대학 제 21회

각계 초청교수님의 특강과 석지형스님의 감동적인 강론에 수많은 청진 불자님께서 흰연꽃 향기 충만한 마음으로 환희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강대법회 : 2000년 12월 7일(목) 오전11시

묘법연화경은 불교의 최상승 경전입니다. 석지형 스님은 전법 수행하며 묘법연화경을 편역 1993년 BBS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계의 여러 신지식 석학여러분을 모시고 출간 대법회를 여법봉행 전국의 인연 사찰과 불자들에게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번 각계 초청 교수님의 특강과 석지형 스님 묘법연화경 강론으로 여전법사 과정을 개설하여 인연 불자들을 진리회상에 초대합니다.

<b>초청특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암도 스님 전조계종포교원장</li> <li>· 무진장 스님 전조계종포교원장</li> <li>· 정락 스님 용주사주지</li> <li>· 박순달 교수 (서울대)</li> <li>· 정병조 교수 (동국대)</li> <li>· 김형식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li> <li>· 정현우 박사 (숙대 경영대학원 교육원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석구 동국대학교총장</li> <li>· 박완일 회장 (전조계종 전국신도회장)</li> <li>· 김형호 박사 (정신문화연구원교수)</li> <li>· 안병욱 교수 (숭실대 명예교수)</li> <li>· 서윤길 교수 (동국대)</li> <li>· 강영숙 원장 (예지원 원장)</li> <li>· 김규대 법사 (국방부 법사)</li> </ul>
-------------	--	--

· 매 주강좌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6개월) · 내 용 : 불교기본교리, 참선, 명상, 건강행법, 생활불교, 법화경

· 동 참 금 : 5만원 ● 동참 불자님께 법화경(819p 고급양장 단행본)드립니다. ● 묘법연화경은 전법과 수행에 적극 후원합니다.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TEL 511- 6210~5 · 3443-9871~7 · 3446-2158,2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압구정동 현대고 · 신사중 정문 맞은편)